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6호는 이주의 시대 다양한 형태의 이동에 따른 공동체 성격의 변화와 다양한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여 특집 “타자와 공동체”를 기획했다. 본 특집은 공동체의 경계와 구분을 횡단하는 타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공동체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를 역사, 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확인하는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문종현의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은 프랑스 현대사에서 ‘타자’로 기억되는 피에 누아르의 존재를 1962년 알제리 독립이라는 시대적 구분과 지중해 양안이라는 공간적 분할 통해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문종현은 논문을 통해 알제리 독립 이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던 피에 누아르는 박탈당한 고향에 대한 향수, 전쟁과 탈출의 기억을 간직한 채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역사적 고유성을 형성하는 타자로서 탈식민 시대 프랑스의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의 주체로 소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신영현은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논문에서 손흥규의 『이슬람 정육점』이 다문화소설로서 이론 문학적 성취를 살펴본다. 신영현의 분석에 따르면, 『이슬람 정육점』은 세 가지 모티프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비전을 형상화한다. 신영현은 먼저 주인공들이 가진 상처와 흉터는 민족, 성, 계급,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통의 유대로 엮어 주며, 두 번째의 주요 모티프는 언어에 대한 남다른 통찰이라고 주장한다. 말더듬이인 유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함 있는 도구이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없이 내뿜는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임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신영현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기기만임을 지적한다. 마지막 특집 논문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서 최강화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체 내 타자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혐오로 인식되는 ‘체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을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최강화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외국인 혐오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국인 혐오 현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연구의 동향이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최강화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인, 학생, 한국, 다문화, 교육 등과 같은 단어의 중심성이 높은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혐오, 발언,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반 논문은 총 3편으로 구성된다. 먼저 권형진은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의 특징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역사적으로 영제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뉴질랜드의 인구구성은 이민정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1871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 시행된 지원이민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한다. 이진옥의 「영국 여성들 백화점에 가다: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의 어떤 만남」 연구는 영국의 19세기 중엽 이후, 도시의 경관을 변화시키며 등장하기 시작한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과 여성 선거권을 요구한 단체들의 캠페인 전략이 유사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한다. 이진옥은 논문을 통해 백화점은 여성 전용 공간, 즉 대화방이나 카페, 그리고 독서실, 미술관 등 이른바 ‘문화 공간’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쇼핑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적 영역을 나온 여성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조적 행위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홍상현은 「영상콘텐츠 제작 체험을 활용한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운영 사례- <문화다양성 공간 탐방과 디지털 노마드>의 수업 설계와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의 실제 운영 사례들을 분석한다. 홍상현은 COVID-19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갖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점점 더 대면수업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모미그란스』 26호의 <연재-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은 양재혁의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로 구성된다. 양재혁은 이주의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지식과 문화를 오리엔탈리즘 분석으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사이드의 연구를 통해 조명한다. 양재혁은 사이드가 기원과 본질이 생산하는 위로 대신 혼란과 불안을

받아들이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를 바라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사이드의 '망명자/추방자' 지식인은 단지 물리적·지리적 추방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성체제의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창조적 사유를 생산하는 자임을 확인한다. 양재혁의 평가에 따르면 사이드의 지식인과 문화 관련 논의는 세계에 대한 인간 지식의 형성 과정과 타문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주의 시대 문화에 관한 유동적, 다공적, 혼종적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